

◆ 새로운 인간 발견

유체이탈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인간 내면②

로버트 먼로 / 이원규 옮김

지난 호에 로버트 먼로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의 글은 유체이탈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유체이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뭔가를 배울 수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가 왜 유체이탈이라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성장에 가장 커다란 장애이다. 우리가 이 물질 우주에 태어날 때는 오직 두 가지 두려움만 있다고 한다. 시끄러운 소음과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둘은 탄생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좀더 많은 두려움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성숙에 이를 때쯤에는 두려움들로 무겁게 짐지워져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현은 슬프게도 방해받아 오고 있는 것이다.

미지(未知)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지가 파악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사라진다. 그리고는 우리가 직면한 무엇이든지 그에 맞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에는 너무도 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다. 따라서 두려움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그것을 피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더욱 두려운 것이다. 여기 그 한 예가 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며, 내가 탐구하고 기록한 많은 결과들은 바로 이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진정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그저 똑같은 채로 있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사실은 정말 근거가 있는 것 같다. 대개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에 맹렬히 저항하기 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싸움은 변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막으려고 분투하며, 또는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도심초사하여 그 진행 과정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변화는 있게 마련이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변화의 속도이다. 느린 변화를 진화라 하고 빠른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 변화는 결국 가장 커다란 두려움의 원인인 미지(未知)의 축소판이다.

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했다. 나는 알지 못한 채, 공포에 싸여 새로운 현실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 현실을 나는 새로운 전체상이라고 이름하였다. 이제 나는 이 새로운 현실과 함께 하고 있다. 내 삶의 변화는 단순히 똑같은 것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근심할 수도 없는 변화였다. 이 변화가 우연히 또는 점진적으로 나의 삶에 끼여들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갑작스레 발생했으며, 나에게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1958년, 나는 육체를 벗어나 떠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자유 의사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무슨 영적인 수련을 쌓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돌발적인 일이었으며, 잠자는

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어서 단순히 꿈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 나는 그것이 뇌종양이나 죽음에 임박한 발작, 정신병 등에 의한 심각한 환각 증세라고 생각했다.

그 현상은 계속되었고 조절할 수도 없었다. 대개는 눕거나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또는 잠자려고 준비할 때 일어났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씩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하기도 전에 나는 육체 위로 몇 피트 분리되어 떠올라 있곤 했다. 나는 공포에 떨며 공중에서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발버둥쳤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

그 당시 나는 건강상 큰 문제나 스트레스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 사업에 열심이었고, 라디오 기지국과 다른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은 뉴욕 메디슨 가에 있었고 집은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아내와 작은 두 아이도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었다. 약물 치료를 받거나 마약을 하지도 않았으며 술은 거의 못마셨다. 특별히 어느 종교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철학이나 동양 종교의 수련을 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런 급진적 변화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때 내가 겪은 두려움과 외로움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어려웠던 것은 이 현상에 대해 말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와 과학에 강하게 매여 있던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서구의 전통 의학과 정통 과학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의사는 다방면의 검사와 조사를 마친 후에 나에게 뇌종양이나 그 외 신체적인 이상이 전혀 없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단지 그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에는 용기를 내어 정신병 의사와 심리학자를 찾아갔다. 이들은 모두 나

의 친구들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아무런 정신병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나를 너무도 잘 알았다. 심리학자인 한 친구는 인도의 구루(스승)를 찾아가 그 밑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련을 해보라고 제의했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내가 속해 있고, 숭배하며 존경해 왔던 문화로부터 벗어났으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존욕이란 대단히 강력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 현상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죽음의 전주곡이 아니며 지배 가능한 현상임을 발견했다. 지금은 유체이탈(OBE; Out Of Body Experience)로 알려져 있고 친숙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OBE의 경험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꼬박 일 년이 걸렸다. 40여 차례 이상의 OBE '여행'을 통해 나는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지식으로 인해 두려움은 곧 사라졌다. 그리고 두려움은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었다!

아직도 뭔가가 남아 있었고, 나는 해답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답을 인도의 아쉬람에서 찾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했다. 좋든 싫든, 나의 사고 과정은 서구 문명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조직적인 지원을 구하고 이 이상한 '미지'의 현상에 연관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나는 사재를 털어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것은 후에 분리되어 먼로 연구소라 불리게 된다.

이 연구소의 원래 목적은 오직 내 자신의 개인적이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미지의 현상을 가능하다면 모두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체이탈 현상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먼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고 당연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심원하고 이상적이거나 고결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유체이탈(OBE)이란 물질 육체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확연히 지각하는 의식 상태를 말한다. 분리되어 있는 거리는 2인치일 수도 있고, 2천 마일 이상일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도 육체 상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각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유체이탈의 초기 상태에서는 물질 육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 머리카락, 어깨, 팔, 다리 등등. 그러나 다른 차원의 존재인 이 상태에 친숙해질 수록 인간에 가까운 형상을 덜 띠게 된다. 육체라는 주형(鑄型)을 빠져 나오면 그것은 젤라틴과 비슷하게 된다. 잠시 동안은 주형의 틀을 닮아 있지만 곧 녹아서 윤곽이 희미한 액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원래의 형태를 회복하려면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하나면 충분하다.

이 '두 번째 몸'은 주형에 부어지는 플라스틱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든 당신은 당신 그대로 남는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당신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아무런 한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유체이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공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시공의 한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의 일부는 아닌 것이다. 비물질적 자아인 당신은 또 다른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편안해진다. 거기서는 아주 커다란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풍선이나 연과 같다. 보이지 않는 그 끈의 다른 끝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초기 연구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육체 의식이 가장 생동적이라고 여기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존재의 다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몇 가지 조사로 우리는 현재의 지식이나 신념 체계에 속하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 냈다. 여기서 '신념(belief)'이라 함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거나

확인될 수 없는 것에 붙이는 용어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얻어맞거나 충격을 받고 기절할 때, 술이나 마약을 과용하여 취했을 때, 잠·죽음 등으로 무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 의식은 어디로 간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기가 차단되면 전자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자기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의식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전기적 흐름'에 변화를 주면 자기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처럼 의식도 그러할 것이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법도 모른 채 의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런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해답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더 많은 질문만을 만들어 낼뿐이다. 우리는 곧 더 큰 정보의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우리는 물리적 설명을 찾는 것에서 방향을 바꿔 다른 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기적 흐름이 감소되어도 의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즉시 그런 예를 찾기 시작했다. 육체를 벗어날 때 우리는 의식을 잃지만 그때도 기억은 존재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몇몇 육체적 감각은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의식이나 무의식이란 용어에는 기준이 있다. 한번의 생각으로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통용되는 기준으로 의사 소통을 못할 때도 의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을 가진 혼수 상태인 인간 존재가 계속 있어 왔다. 그들은 단지 육체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 것뿐이다.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채 행하는 우리의 많은 육체적 기능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 문명은 비의식(non-consciousness) 시스템이란 것을 발명해야만 했다. 이것은 자율 신경이나 잠재 의식, 대뇌 변연계 등이란 용어로 동일화되었다. 거기에는 잠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조절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의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0년대 먼로 연구소에서는 의식이라는 측면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유체이탈 현상에 대한 연구도 시작

되었다. 우리는 많은 유체이탈 경험이 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단순한 꿈으로 잘못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부적절하고 막연하거나, 꿈과 연관된 비실제적 특질은 제외한 것이다. 다른 자발적인 유체이탈은 수술을 위한 마취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때 환자들은 수술대 위에서 6~8피트 분리되어 떠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위치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기술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우연한 유체이탈은 사고나 심한 상처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대부분 이 사건들은 진기한 일로 여겨지고 그들의 기억에서 예외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념 체계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자발적 유체이탈은 종종 임사체험(臨死體驗)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도 역시 자주 일어나며 대개 마취 상태의 수술 기간 중에 일어난다. 이 사건은 대부분 환자들의 신념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물리적 육체 그 이상이라는 사실과,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도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유체이탈이라 부르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너는 제 정신이 아니다(You are 'beside yourself'), 미쳤다('out of your mind'), 잠에 빠진다('fall'), 깨어나라(wake 'up'), 의식을 잃다(pass 'out') 등. 지난 10여 년 간 행한 이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25% 이상이 최소한 1번의 유체이탈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당신도 그 25%에 속할지 모른다.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타지 않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적이 있는가? 주차장에 있는 많은 차들 중에서 당신의 차를 찾다가 발견하는 꿈을 꾸고는 즉시 깨어난 적이 있는가?(우리는 종종 자가용을 자신의 부가된 육체로 여긴다). '떨어지는' 꿈을 꾸는 적이 있는가? 그 꿈에서 당신은 '바닥'에 부딪히는 대신 꿈에서 깨어난다. 이것은 흔히 유체이탈 중에 알람 시계가 울려 급하게 다시 물질 육체로 들어갈 때 꾸는 꿈이다.

1970년까지 모든 탐구 노력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밀히 진행되었다. 결국 나는 보통 사람과 거래하는 보통의 사업가였기 때문이다. 만일 비밀리에 진행시키던 이 작업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나의 사업 수행 능력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원히 침묵한 채로 있을 수는 없었다. 나의 첫 번째 책 '체의 여행 (Journey out of Body)' 이 발간되자 우리의 작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많은 자발적 참여자도 구할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개발해 낸 방법을 통해 유체이탈을 재현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나에게 너무도 친숙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많은 대학과 라디오, TV에서 유체이탈 경험이 소개되었고, 심지어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도 강연하였다. 이에 관한 주제의 논문 세 편이 캔자스 대학의 의료 센터와 먼로 연구소의 후원으로 미국 심리학회 연례 모임에 제출, 발표되었다. 이제는 유체이탈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잡지에 농담이 실리고 T셔츠에도 유체이탈을 주제로 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TV프로그램에서는 밥 호프(미국의 유명 코미디언)까지도 농담의 주제로 사용한다. 유체이탈의 실재는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OBE(Out of Body Experience ; 유체이탈)라는 용어도 우리의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먼저 당신이 물질 육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도구가 생겼다는 것 뿐이다. 우리는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해 과학계와 인류 전체에 이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경험 외에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도 유체이탈을 증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유체이탈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물질 육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살아 남는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기를 희망하거나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 유체이탈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유체이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이 삶에 도달한다. 더욱이 그러한 죽음 이후의 생존은 우리가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

이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물질 육체 사후에 자아가 살아 남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정도이다.

다음 유체이탈의 가장 커다란 장벽은 두려움이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물질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식의 집착은 대단히 강하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뭔가 완전히 다른 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뭔가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가 배울 방법이라곤 오직 한 번에 한 단계씩 유체이탈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면 초심자가 변화에 익숙해지고 경험을 흡수하여 그런 변화가 결코 위험하거나 육체적 생명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는 그들이 육체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뒤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야 지속적이고 친숙한 의식의 기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점차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유체이탈 상태에서 존재하는 마음-의식은 의미심장하게도 물질 육체 속의 깨어 있는 의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지성적, 분석적인 의식의 초점은 없는 것 같다. 육체 의식이 끼여들으로써 이것이 생기는 것이다. 또 이 상태에서 우뇌의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활성화시키기가 더 어렵다(여기서 사랑은 제외되며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체이탈 상태의 의식에서 우리 자신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공개되는 것이다. 억제되어 숨겨진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은 없다. 그러므로 속이거나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시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거기에는 또한 항상 물질 육체 상태에서 쌓였던 생각들이 저절로 표출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그것에 저항하게 된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 육체 이상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

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바램과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정보를 찾아서 얻어 낸 해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육체적 죽음 후에도 살아 남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에게 증명하고자 한다면 유체이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면 된다. 그 상태가 되어 최근에 죽은 친구나 친척, 당신과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들을 떠올렸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표현 방식에 대한 당신의 기억에 의식을 동조(同調)시키는 것이다. 여러 번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접촉은 그들이 죽은 후 곧 시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은 이제 막 마친 삶에 대한 흥미를 곧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체이탈 상태는 정보를 얻기 위한 탁월한 도구이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의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유체이탈의 가장 간단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상 배우자와 떨어져 있을 때, 상대 배우자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당신은 편안하게 된다. 한 예로 나의 딸은 타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유체이탈 상태로 들어가 그 애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곤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실수를 했는데, 딸이 잠시 집에 다니러 왔을 때 나는 이 사실을 그 애에게 말해 버렸던 것이다. 1년 후, 그 애는 나에게 말하길 매일 밤 침대에서 잠들기 전이면 천장을 향해 "아빠 주위에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하곤 했다는 것이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엿보기라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흥미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당신은 유체이탈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직접 어느 장소라도 가서 그곳에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당신이 목표로 한 지역에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물질적인 대상을 집어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신의 손은 그 물질을 통과해 지나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이 당신은 우리의 연구소가 행한 탐험에 함께 따라올 수 있

다. 당신은 지구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지구를 통과할 수도 있다. 달 주위를 여행하거나 태양계를 돌아볼 수도 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의 우주선들이 달 사진을 찍기 전에 달의 뒷면을 먼저 보고 알아내기도 했다. 그것은 화성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성을 갖춘 생명 형태의 존재가 아니면 세울 수 없는 인공 구조물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몇몇은 여러 번 태양계 밖을 여행하기도 했는데 대개는 길을 잃었다. 그것은 지구를 기점으로 어디를 갔다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탐험자는 단순히 자신의 물질 육체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면 되었다. 광속의 한계라는 문제도 없었다.

물질 우주에 지성적 존재가 있다해도 우리는 그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숨었거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의 탐사는 아주 미미하였다. 더 먼 은하계까지 조사했다라면 어떤 생명 존재를 만났을지 모른다. 언젠가 우리 중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비물질적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수백 수천의 존재를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인간이 아니었다. 유체이탈의 탐험은 물질 우주 밖에서 기능하는 제1의 도구이다. 유체이탈 상태의 '제 2의 신체'는 분명히 비물질적이다. 그것은 다른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이다. 지구의 생명 시스템과 섞여 있지만 위상이 달랐다. 실마리는 물질적 존재를 떠나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에 놓여 있다. 이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서 행동을 찾아보면 그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잘 되어 있으며 당신이 유체이탈 상태에 능숙해지면 어떤 특별한 친구도 만난다. 유체이탈 경험과 모험의 길은 넓고도 다양하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시공 개념을 벗어나 있다. 우리는 단지 지구 생명 시스템과 직접 연관 있는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비교 대상이 될 지식도 경험도 없다. 그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당신이 발견한 것을 번역하려는 데 있다. 물질 세계로 되돌아 올 때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결코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은 기존에 알려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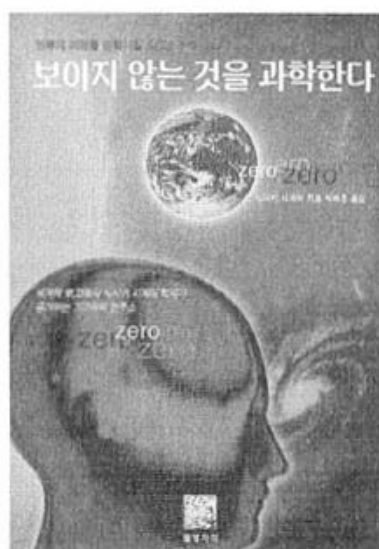
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미지였으나 이제는 기지(既知)가 되어버린 무언가를 안고 돌아온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 확신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믿음이나 신뢰가 아니라, 당신은 물질 육체 이상이며, 육체의 사후에도 살아 남는다는 앎, 그 지식이 당신 자신의 삶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아무런 조건이나 우발적인 사건 없이 기지가 되어버린 이 두 개의 미지의 사실! 그것이 만들어 내는 차이는 엄청나다!

새로 형성된 세계관은 이 두 개의 미지를 개인적인 기지로 만들 수 있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당신 신념의 안전벨트를 풀고 전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라.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출발하라!(계속) **정리**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사사키 시게미 지음 박희준 옮김 도서출판 물병자리 펴냄)



사람이 자기의 의식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변성 의식 상태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이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금속에 하중을 계속 증가시키다가 꺾여 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꺾어져라'라는 명령 하나로 꺾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갖거나 소망을 품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실현되어 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변성 의식인 것이다.

변성 의식 상태를 자기의 내부에 만들어 내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기의 의식을 무한히 제로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무(無)'라든가 '공(空)'이라고 하는데 의식을 제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것과 얼마쯤 닮았다. 닮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의 수행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 본문 중에서 -